

# ‘무주의 붉은 노을빛 역사를 걷다’

‘무주문화재야행’ 29~30일 무주한풍루·무주향교 일원서 개최

‘무주의 붉은 노을빛 역사를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무주문화재야행(夜行)’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무주한풍루와 무주향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한풍루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우수한 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주변 문화 인프라의 탁월한 구성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무주의 자긍심으로 꼽히는 한풍루와 남대천, 향교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은 한풍루에서 무주향교에 가는 야행길에서 곳곳의 야경을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여름 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주 문화재 야행은 야경(夜景)·야사(夜史)·야로(夜路)·야화(夜畵)·야설(夜設)·야시(夜市)·야식(夜食)·야숙(夜宿)으로 구성된 8야(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틀 동안 순돌림재간꾼의 미술공연과 무주 예술인들이 참여한 무주예인전의 버스킹 공연이 흥을 돋울 예정이다.

야경’을 통해 한풍루와 무주향교 대성전 등 무주 문화재 야간경관조명과 무주 문화원, 김환태문학관, 최복미술관,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등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무주문화재야행을 알리는 대형 포토존이 남대천교에 설치돼 연인 및 가족단위로 참여한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사’는 무주향교에서 유생들이 즐겼던 전통놀이 화기투-저포놀이-용호삼육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또 향교 유생 의복 및 생활상 체험, 다양한 차와 다식 체험, 한지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야화’는 무주문화원 광장에서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적산산사고 봉안행렬과 봉안식 사진 전시, 무주문화재 나들이로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등 무주군 문화재를 담은 사진과 무주관광 사진을 전시한다.

‘야로’는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문화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남대천변에서 펼쳐질 ‘시크릿문화재 스탬프투어’는 불빛을 이용하여 숨어있는 문화재이름을 찾아 스탬프를 찍고 모두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야설’은 한풍루 옆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며 전통무예 태권도시범단 공연과 전통타악공연인 붉은 울음소리, 그리고 퓨전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실시하여 밤하늘에 수놓은 풍류로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야식’, ‘야숙’에는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리마켓과 향토음식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야숙’은 무주군 숙박업소(펜션, 리조트 등)를 이용하여 소정의 기념품(선착순)을 제공하며, 무주 문화재 야행 웹페이지 또는 무주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문화재야행 포스터

화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여름밤 ‘썸머 페스티벌’ 로 떠나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9일~8월 20일 매일 밤 다양한 공연 선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2022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이벤트 광장에서는 MC 레크레이션, 퓨전국악, 전자현악, 발론퍼포먼스, 재즈밴드, 팝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원형무대에서는 어쿠스틱 밴드의 감미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또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이벤트 광장에서 약 5분간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열정적인 공연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열대야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 펼쳐진다. 주말 낮에는 설천봉 야외 무대에서 국악공연과 전자현악, 통기타 버스킹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원한 바람과 계곡,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한여름에도 아침·저녁에는 쌀쌀



함이 느껴질 만큼 시원하다. 특히 해발 1,520m에 위치한 설천봉은 한낮에도 25°C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바람을 만끽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객실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다. 침실, 화장실, 주방용품, 객실비품 등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객실 컨디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회전목마, 유로번지, 미니기차, 물살매 등의 놀이시설과 관광곤도라, 골프장 등의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도도한 순례씨~ 꽃길만 걸어요’ 전

정미정 개인전,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관 인사아트센터 6층에서 ‘정미정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다양한 기획 초대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도한 순례씨~ 꽃길만 걸어요’라는 전시회는 모든 어머니의 이름을 대신하는 순례씨들에 이야기다. 따뜻하고 포근한 품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꽃길만 걸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원초적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본질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에서 표출되는 자연에 대한 생명적 리듬은 추상화된 꽃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출은 작품에서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성으로 작용한다. 자연물과 꽃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가만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번 변형 작품은 사람의 형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작가의 특유 감각과 발상으로 형상화해 추상적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과 꽃의 이미지를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만개한 꽃의 조형적 특징을 작가만의 미적 감각과 색채를 통해 접목시켜 감



성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 만개한 꽃에 단순화된 형태의 유동적인 흐름은 슬픔을 억제하고 환희와 기쁨, 감동으로 승화해 가는 인간 감정의 그 정적인 측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만개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작품 속을 유영하고 있는 모습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만끽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과정을 뜻한다. 만개한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만개를 지나 시들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과정으로 여기며 이를 순례씨라는 이름을 빌려 공감하고 겸허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 순창군, 창작 오페라 ‘항아리 아씨전’ 공연

순창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향토회관에서 순창 설씨 부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국악 오페라 ‘항아리 아씨전’ 공연을 진행한다.

‘항아리 아씨전’은 조선 최초의 여성 문장가이자 서화가인 순창 설씨부인과 남편 신말주의 사랑이야기를 국악 오페라로 창작한 작품이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오페라, 이카펠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귀에 들어오기 쉽게 창작한 곡들로 이루어져, 일반

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와 서양의 오페라라는 장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참 좋은 순창’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순창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공연은 전북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화포럼 나니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이번엔 익산여행 어떠세요?’ 익산관광 사진전 전국 투어 개최

익산여행의 매력을 담은 익산관광 사진전이 전국 투어로 열린다. 익산시는 ‘2022~2023 익산방문의해’를 맞아 우리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철도 거점역에서 ‘이번엔 익산여행 어떠세요?’라는 주제로 익산관광 사진전을 진행한다. 먼저 익산역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첫 사진전이 시작된다.

이번 사진전에는 익산의 주요 관광지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을 비롯해 주요 행사인 서동축제, 국화축제, 문화재야행 등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또한 8월은 광복절을 포함해서 21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현장에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여행과 사진전 관련한 게시글을 개인SNS에 업로드 하면 익산기념품을 현장에서 증정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익산역을 시작으로 9월부터 수서역과 용산역 대전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사진전과 이벤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대, ‘다시 읽는 한국 근대문학사’ 성료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최근 도민과 함께한 ‘다시 읽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성료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시 읽는 한국 근대문학사’는 이용욱 교수(한국어어문학과)가 맡아 1950~90년대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작품을 함께 읽어보는 수강생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이에 수강생이 시대별 대표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26일부터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